(1) 西紀1962年9月27日(木曜日) 1950年7月1日登錄·登錄番號C一00號 The Dong Kook University Press (1955. 10. 13第三種郵便物認可) (1954年6月20日創刊) 第205號

東大新聞

編輯兼發行人 鄭 斗 石
主幹 金 鎭 福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② 1665 1686 6901

(週刊) 購讀料 貳拾원 一部定價 五원

今週一言
法律의 實踐은 法律의 制定보다 더욱 重大하다.
—<제퍼슨>—

캠퍼스에 불는 選擧戰

라올幕이미 은等選擧 長會學

長會生學

10月6日에 選擧 立候補者登錄은一日부터

캠퍼스에는 各學科學年別 代議員選出과 學會長選擧가이미 幕이올라 仲秋를 「시즌」으로 장식하고있거니와 西建學生 여기에 一時 混亂을 加重시킬 것은 佛이다。그 선 다만 總選擧에 바라고 싶은 것과 生有權者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再建學生會自 治活動中 選擧全般에 걸친 公正한 選擧事務를 施行하여 自 治活動의 選擧施行 細則이 하고저 制定되어 있음으로 이에關 하여 四個單科大學會長等六 名의 學生幹部가 모라오는 十 月六日의 總選擧에서 選出될豫 定으로 組織이나、團體에서나를 막 론하고 그 代表者나 任員을 構 成員中 有資格者가 通常的投票 에 依해서 選出함을 말할진대 總選日을 不過 數日로앞 둔 學生諸君들은 果然 누구를 選出해야만 學生自治에 보다健 全하고 能率的運營이 될것인가 에 關하여 相當한 檢討와 關 心이 表明되어 가고 있는 것 으로 알고있다。再建學生會自 治活動中 選擧全般에 걸친 公 正한 選擧事務를 施行하여 自 治活動의 選擧施行 細則이 하고저 制定되어 있음으로 이에關 하여 四個單科大學會長等六 名의 學生幹部가 모라오는 十 月六日의 總選擧에서 選出될豫 定으로 組織이나、團體에서나를 막 론하고 그 代表者나 任員을 構 成員中 有資格者가 通常的投票 에 依해서 選出함을 말할진대 總選日을 不過 數日로앞 둔 學生諸君들은 果然 누구를 選出해야만 學生自治에 보다健 全하고 能率的運營이 될것인가 에 關하여 相當한 檢討와 關 心이 表明되어 가고 있는 것 으로 알고있다。再建學生會自 治活動中 選擧全般에 걸친 公 正한 選擧事務를 施行하여 自 治活動의 選擧施行 細則이 하고저 制定되어 있음으로 이에關

總會長및 單大會長의 立候補資格은 三學年 在學生으로 學業成績이 平均75點 以上者라야 되는데 26日 現在 總會長에 立候補할수있는 學生은 五·六名으로 前年과 별差 없을것같다。

立候補者들의 所見發表는 選擧前日인 5일 中講堂에서 있게 되며 發表時間은 立候補者가 七分間으로 人身攻擊이나 其他 學生의 身分에 어긋나는 言辭및 政治的 선동은 學校當局에서 一切嚴禁하고 있다。

誌와 詩集發刊 「東國詩集」發刊을 計劃하고 있다。詩集만 「東國文藝」誌는 現在敎務處에서 學生들의 原稿를 수집해놓고 있을뿐 13日 代議員會에서 豫算이 決定되면 곧 發刊될 豫定이다。

選擧委員會에서 13일 代議員總會에서 委員을 選出하게 되는데 前年度와는 달리 이번 選擧戰은 매우 活潑한 양상을보이고 있으나 아직별 다른 表面化하 지않은 것으로보아 前例없는 公明選擧가 기약되고 있다。

總會長및 單大會長의 立候補資格은 三學年 在學生으로 學業成績이 平均75點 以上者라야 되는데 26日 現在 總會長에 立候補할수있는 學生은 五·六名으로 前年과 별差 없을것같다。

立候補者들의 所見發表는 選擧前日인 5일 中講堂에서 있게 되며 發表時間은 立候補者가 七分間으로 人身攻擊이나 其他 學生의 身分에 어긋나는 言辭및 政治的 선동은 學校當局에서 一切嚴禁하고 있다。

誌와 詩集發刊 「東國詩集」發刊을 計劃하고 있다。詩集만 「東國文藝」誌는 現在敎務處에서 學生들의 原稿를 수집해놓고 있을뿐 13日 代議員總

學界學史

學界의 動向

賢 啓 安

여기에 한 家畵가 있어서 그가畵板을 오→한部分에 지나요 決코 A숲의 全體는 아니라는것 그림을 가지고 史學徒는 그 A숲인가를 索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A숲」에서 新羅史의 경우 수목 A숲의 輪廓을 模索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冒險이마저 있어서 그가畵板에 어떤 숲을 寫生해 놓았는지 그 史料가 限定되어 있는 古代의 稀少한 史料를 가지고써 古代社會의 輪廓을 模索한다는 것은 어떤 많은 學者들이 努力을 하여도 그 그림의 A숲은 果然 어느 地點에 畵板을 놓고 그리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므로 우리는 「A숲」에서 新羅史의 경우 骨品、官制、六部、佛敎、學術、花郎、思想等 新羅社會를 그리어 내는 核心的인 問題이면 한 가지고서는 全體의 狀態를 把握하기 어렵다。

이런 面에서 李基白兩敎授의 新羅史構成에 하나의 前進을 보인 것이었다。

金哲埈、金龍德 兩敎授의 共同硏究討論會가 있었다。

李佑成敎授의 「高麗史의 硏究」 (歷史學報 第十七·十八輯) 에서 新羅史의 경우 骨品制度와 官制와의 關係를 硏究하여 新羅史에 대한 새로운 見解를 내리었다。

三國遺事의 竹旨郎條에 보이는 竹旨郎의 三國統一에 있어서의 功績을 높이 評價하였다。

李基白敎授의 「新羅貴族勢力의 基盤」 (人文科學 第七輯) 에서 新羅貴族勢力의 基盤을 骨品制度에 두고 있었다。

李基白敎授의 「新羅政治形態의 一考察」 (歷史學報 第十七·十八輯) 에서 新羅의 政治形態를 貴族連合體로 보았다。

金哲埈、金龍德 兩敎授의 「韓國古代社會硏究」 (乙酉文化社刊) 에서 古代社會를 部族國家로 보았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科擧制度에 關한 硏究」 (震檀學報 第二十二號) 에서 高麗의 科擧制度를 硏究하였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兩界와 東北面」 (歷史學報 第十七·十八輯) 에서 高麗의 兩界와 東北面을 硏究하였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三京制度」 (震檀學報 第十四號) 에서 高麗의 三京制度를 硏究하였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守令」 (震檀學報 第十四號) 에서 高麗의 守令을 硏究하였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地方統治策」 (震檀學報 第十四號) 에서 高麗의 地方統治策을 硏究하였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鄕吏」 (震檀學報 第十四號) 에서 高麗의 鄕吏를 硏究하였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軍制」 (震檀學報 第十四號) 에서 高麗의 軍制를 硏究하였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軍役制度」 (震檀學報 第十四號) 에서 高麗의 軍役制度를 硏究하였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軍人田柴科」 (震檀學報 第十四號) 에서 高麗의 軍人田柴科를 硏究하였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軍人選上規制」 (震檀學報 第十四號) 에서 高麗의 軍人選上規制를 硏究하였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軍學」 (震檀學報 第十四號) 에서 高麗의 軍學을 硏究하였다。

李佑成敎授의 「高麗의 軍事制度의 一面」 (震檀學報 第十四號) 에서 高麗의 軍事制度의 一面

輿論調査를 위한 達의 明暗 — 도·논学費調達의 明暗

冷待받인 苦學만도 14%

進學으로 家産은 날로줄고…그러나 돈없으면 답답해

登錄은 숨찬 비길

後繼者 없는 「國民會議」만 肥大케

印度 위해 平和共存 主張

P. J. 네루 (Pandit Jawaharlal Nehru 1889~)

캠브릿지 大學卒業後 一九一八년 이래 印度自治聯盟및 國民會議派에 參加 一九二〇년 對英非協力運動으로 투옥 一九二七년 印度民族運動을 추진 一九二七년 印度民族運動을 추진 一九二七년 印度民族運動을 추진

偉大한 遺産

—여하의 對鑑賞에 그 와謠歌代古—

畫史鹿姜

우리 古典文學이 그 文學的 가치에 있어서 量的或은 質的으로 深刻한 懷疑를 갖는가 하면 어느 意味에서는 지극히 素朴한 獻身的愛情의 結果를 낳는다。 盲目的으로 偉大한 母性을 그린다는 것은 人間의必然的인 契機를말해 주는 것이 겠으나、 한번쯤은그 極端을이루고 있는 遺産에 對하여 率直하게 그리고眞正한 理解로서 信賴할수 있는 可能한 길을多方面으로 파헤치는 勞力이 必要하지않겠는가?

崔 五 孫

材料로서 거계적으로 組立된 狀態로만 바라본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客觀的 學三者의 條件을 見出할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傳統的 精神世界는 물론 이데이 오로지 歷史的 方向에 있어서 自我의 發展 그 出發한 事實이 材料가 되어지고 있는 方面의 것을 하나의 方法論的인 試圖로서 살펴볼가 한다。

一般 文學作品이 特히 그중에서도 詩歌의 本을 들춰 보는 것이다。 하나의 作品이 完成되기 까지에는 그 過程은 全的으로 作者의 것이다。 그러나 一旦 그것이 作者의 手中에서 떨어져 있을때 그것은 누구 뜻있는 사람은 없을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의 所有도 되는 것이 연해 지다。

여기 古詩를 對할때 이 語源 혹은 語法에 그 文學的生 態度는 우선 語源 그것이 무엇에 있는가 생각할때 즉 象徵의 組織은 물론 隱喩에 이르는 具體的 體驗인 것이겠다。

여기서 덧붙혀 생각할것은 歷史、特히 文學史가 記錄이 아니라 表現이라는 絶對的 基本精神에서 生命의 무엇에 있는가 하는 方向을 指向하는 純粹한 孤獨의 克服을 낳는 것이다。

이것은 곧 象徵의 貧困인 것이다。 진정한 生命의 價値 析作業이 수반 되어야 하며 그것은 곧 새로운 學史가 記錄이 아니라 表現이라는 絶對的 基本精神에서 生命의 가치는 하나의 무릇 또는 方法을 어떻게 適用하느냐 하는 立場의 問題가 가장 重要한 것은 勿論 이것이 곧 作品의 完成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 詩歌의 語源 혹은 語法에 그 文學的生 態度는 우선 語源 그것이 무엇에 있는가 생각할때 즉 象徵의 組織은 물론 隱喩에 이르는 具體的 體驗인 것이겠다。

여기서 덧붙혀 생각할것은 歷史、特히 文